



성은정



최혜진



윤민경

1999년생 삼총사 ‘눈에 띄네’

제3의 황금세대 등장 예고

성은정·최혜진·윤민경 여고생 돌풍
1~2년 뒤 프로무대 진출 벌써 기대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서 1988년생과 1995년생은 ‘황금세대’로 통한다. ‘세리키즈’로 불리는 1988년생들은 여왕을 무수히 탄생시킨 한국여자골프의 최강세대다. 한국선수 최초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 그리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년 연속 상금왕을 휩쓴 기록제조기 신지애(28·스리본드)를 비롯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박인비(28·KB금융그룹), 일본여자골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보미(28·노부타그룹), 2011~2012년 KLPGA 상금왕을 지낸 김하늘(28·하이트진로) 등 스타플레이어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박세리를 보고 골프를 시작했다고

해서 세리키즈로 불린다.

그 이후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러나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제2의 황금세대로 평가받은 건 1995년생들이다. 아마추어 절대강자에서 프로 1인자가 된 김효주(21·롯데)를 비롯해 2014년 KLPGA 신인왕 백규정(21·CJ오쇼핑), KLPGA 투어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고진영(21·넵스)과 김민선(21·CJ오쇼핑) 등이 있다. 아직까지는 세리키즈의 명성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 계단씩 올라서면서 바통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머지않아 제3의 황금세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고생 신분으로 아마추어와 프로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1999년생 3인방이 그 주인공이다. 24일(한국시간) 미국여자주니어 챔피언십에서 45년 만에 2연패를 달성한 성은정(17·영파여고2)을 포함한 KLPGA 투어에서 종종 우승을 넘보고 있는 최혜진(17·학산여고2)과 윤민경(17·대전체고2)은 벌써부터 주목받는

여고생 예비스타다. 특히 성은정과 최혜진은 당장 프로무대에서 뛰어도 손색 없을 실력을 지녀 제2의 박성현·김효주로 평가받고 있다.

성은정은 175cm의 큰 키에서 뿔어나오는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장기다. 드라이브샷도 박성현만큼 멀리 쳐 일찌감치 재목으로 눈도장을 받았다. 지난 6월 BC카드 레이디시오펜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최혜진은 KLPGA 투어에서 챔피언즈 언조 단골손님이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에서 열린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서는 마지막 날 우승경쟁을 펼치며 여고생 돌풍을 일으켰다. 윤민경은 프로무대에서 크게 두각을 보인 적은 없다. 그러나 작년 US여자오픈 예선전을 통과하면서 메이저대회 경험을 쌓는 등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제3의 황금세대는 1~2년을 뒤 프로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리우서 값아주면 돼!”

한국이 여자골프 국가대표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다. 유소연(25·하나금융), 김세영(23·미래에셋), 양희영(27·PNS창호),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알리노이 주 거니의 메리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2승2패를 기록하며 승점 12로 미국(승점 13)에 이어 준우승에 만족했다.

전날까지 사흘 동안 계속된 단체전 경기에서 4승2패(A조 1위)를 기록한 한국은 이날 싱글매치 플레이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 역전 우승을 노렸다. 그러

나 양희영이 일본의 노무라 하루에게 일격(3&2로 패)을 당하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전인지도 테레사 루(대만)에게 4&3으로 져 우승 전에 머그컵이 꺼졌다. 그래도 희망은 이어졌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세영이 찰리 헐(잉글랜드)을 5&4로 꺾으면서 귀중한 승점 2를 추가해 우승의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스테이시 루이스와 제리나 필라가 승리를 따내면서 앞서 나갔고,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베테랑 크리스티 커가 멜리사 리드(잉글랜드)를 상대로 다시 승점 2를 추가하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유소연이 텍사스(미국)를 꺾었지만 아쉽게 1점차 준우승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3위와 2위를 기록해 아직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다음 대회는 2018년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한국선수 중 3승1패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김세영은 “2년 뒤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면 국내 골프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주영로 기자

‘캐나다 악몽’ 극복한 김시우

(2013년)

RBC캐나다오픈 공동 23위 선전

김시우(21·CJ대한통운)가 3년 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캐나다오픈(총상금 590만 달러)에서 공동 23위에 오르며 ‘캐나다의 악몽’에서 벗어나 있다.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끝난 RBC캐나다오픈은 3년 전 김시우에게 굴욕과 상처를 안긴 대회다. 2012년 필리파잉스쿨에서 최연소 통과 기록을 세우며 PGA 투어에 데뷔한 김시우는 이듬해 나이제한에 걸려 8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RBC캐나다오픈은 그 중 하나였다. 출전부터 매그립지 못했다. 6월28일 나이제한이 풀린 김시우

가 나갈 수 있는 대회는 5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회에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김시우는 희망을 안고 캐나다로 떠났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냥 발걸음을 돌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개막 하루를 남기고도 출전 명단에 이름이 뜨지 않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으로 향하던 중 노승열의 누나로부터 “출전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전화가 왔다. 김시우는 부랴부랴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다. 항공 위약금을 두 번이나 내고 얻은 천금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김시우는 이를 만에 경기를 끝내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집으로 향해야 했다. 공항에서는 더 억울한 일을 경험했

안신애, 초록우산 친선대사 위촉

프로골퍼 안신애(25·하운대비치리조트)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친선대사로 위촉됐다. 안신애는 25일 서울 중구 무교동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친선대사 위촉패를 전달받고 앞으로 어린

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안신애는 “TV나 언론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소외 아동들에

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신애는 투어 활동 중에도 틈틈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KBO 프로야구 기록실 <25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점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홀런	도루	실책
1	두산	89	58	30	1	0.659	-	1승	0.297	4.29	0.659	554	408	103	56	48
2	N C	83	51	30	2	0.630	3.5	2승	0.291	4.46	0.595	516	393	105	49	49
3	넥센	91	51	39	1	0.567	8.0	1패	0.291	4.91	0.604	527	481	84	97	67
4	S K	91	46	45	0	0.505	13.5	1승	0.290	4.45	0.511	476	469	122	59	80
5	롯데	88	43	45	0	0.489	15.0	1패	0.292	5.66	0.548	494	525	77	86	51
6	KIA	89	40	48	1	0.455	18.0	2패	0.286	5.02	0.477	500	492	104	65	65
7	한화	87	37	47	3	0.440	19.0	1승	0.285	5.63	0.537	466	547	87	46	80
8	L G	86	36	49	1	0.424	20.5	1패	0.284	5.47	0.500	458	515	73	78	63
9	삼성	89	37	51	1	0.420	21.0	1패	0.284	5.61	0.405	492	531	84	73	50
10	k t	87	35	50	2	0.412	21.5	1승	0.272	5.67	0.362	429	551	75	67	83

•Before & After 7-Game

팀	14목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2화
두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삼성	⑮	⑯	⑰	⑱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N C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넥센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S K	㋇	㋈	㋉	㋊	㋋	㋌	㋍	㋎	㋏	㋐	㋑	㋒	㋓	㋔
한화	㋕	㋖	㋗	㋘	㋙	㋚	㋛	㋜	㋝	㋞	㋟	㋠	㋡	㋢
KIA	㋣	㋤	㋥	㋦	㋧	㋨	㋩	㋪	㋫	㋬	㋭	㋮	㋯	㋰
롯데	㋱	㋲	㋳	㋴	㋵	㋶	㋷	㋸	㋹	㋺	㋻	㋼	㋽	㋾
L G	㋿	㌀	㌁	㌂	㌃	㌄	㌅	㌆	㌇	㌈	㌉	㌊	㌋	㌌
k t	㌍	㌎	㌏	㌐	㌑	㌒	㌓	㌔	㌕	㌖	㌗	㌘	㌙	㌚

○=승 ●=패 □=무 * =출장기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두산	삼성	NC	넥센	SK	한화	KIA	롯데	LG	kt
두산	■	6-0-4	6-0-6	5-1-2	8-0-4	7-0-0	9-0-3	4-0-5	5-0-3	8-0-3
삼성	■	■	3-0-3	4-0-5	4-0-5	3-1-8	5-0-4	3-0-9	6-0-4	5-0-7
NC	4	10	■	6-0-5	7-0-4	3-1-3	6-0-5	8-0-1	7-0-1	5-1-2
넥센	8	7	5	■	3-0-6	8-0-4	9-0-1	5-0-3	6-0-6	8-0-4
SK	4	7	5	7	■	3-0-5	5-0-4	6-0-6	7-0-3	6-0-5
한화	9	4	9	4	8	■	4-0-4	6-0-6	4-0-6	3-1-7
KIA	4	7	5	6	7	8	■	8-0-4	6-1-4	5-0-2
롯데	7	4	7	8	4	4	4	■	5-0-3	4-0-2
LG	8	6	8	4	6	6	5	8	■	6-0-3
kt	5	4	8	4	5	5	9	10	7	■

(승-무-패) * 팀간경기없음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이동건	한화	0.359	73	290	104	2	61	26	16	49	15	3	0.345	0.889
2	박건우	두산	0.350	83	297	104	12	55	54	8	26	52	2	0.347	0.964
3	김민호	롯데	0.349	84	341	119	5	54	46	9	37	41	1	0.327	0.880
4	최형우	삼성	0.346	87	327	113	19	63	76	1	59	58	1	0.283	1.050
5	고종욱	넥센	0.345	86	336	116	8	66	52	19	22	69	0	0.422	0.885
6	김주찬	KIA	0.343	86	338	116	12	66	63	7	25	45	1	0.430	0.920
7	타일러	N C	0.339	78	271	92	28	79	76	7	64	56	3	0.329	1.191
8	박용택	L G	0.338	80	305	103	8	53	52	5	36	40	0	0.353	0.870
9	송광민	한화	0.337	66	255	86	13	47	50	1	18	46	8	0.323	0.944
10	정여울	S K	0.337	91	356	120	19	48	72	2	29	53	3	0.347	0.948
11	김태균	한화	0.335	87	310	104	8	52	58	0	78	57	4	0.351	0.949
12	김민호	롯데	0.333	81	267	89	15	46	52	3	35	69	2	0.338	1.021
13	김성현	S K	0.332	91	316	105	5	43	43	3	27	23	15	0.329	0.818
14	김재현	두산	0.329	79	277	91	23	58	70	6	35	59	3	0.342	1.042
15	채운성	L G	0.328	84	271	89	8	41	60	6	24	56	3	0.371	0.851
16	박성민	N C	0.327	77	272	89	18	46	65	2	42	58	6	0.370	0.992
17	이대형	k t	0.327	86	355	116	1	51	24	28	32	57	1	0.347	0.757
18	황재균	롯데	0.327	74	297	97	17	55	66	10	24	35	9	0.404	0.935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스포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방어율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니퍼트	두산	3.16	17	105.1	39	37	13	2	0	95	10	96	44	0.244	1.26
2	김광현	S K	3.30	16	101.0	43	37	7	7	0	96	11	90	34	0.250	1.23
3	정원준	두산	3.32	17	105.2	41	39	11	3	0	101	9	84	57	0.253	1.44
4	양현준	K I A	3.37	20	131.0	60	49	5	8	0	121	11	95	47	0.246	1.27
5	켈터	K I A	3.39	19	127.1	54	48	8	3	0	127	5	80	41	0.264	1.30
6	켈리	S K	3.51	19	123.0	55	48	5	5	0	130	8	86	42	0.275	1.36
7	신재영	넥센	3.58	18	105.0	43	41	10	3	0	121	10	63	13	0.289	1.25
8	레이리	롯데	3.70	19	121.2	57	50	6	5	0	126	15	97	42	0.269	1.32
9	보우덴	두산	4.00	18	110.1	54	49	10	6	0	96	9	98	36	0.236	1.18
10	윤성현	삼성	4.02	19	125.1	63	56	7	3	0	134	20	61	36	0.282	1.28
11	유희관	두산	4.03	19	120.2	58	54	9	3	0	139	11	59	43	0.295	1.49
12	스미트	N C	4.49	18	106.1	56	53	9	5	0	116	8	83	42	0.280	1.42
13	피터밴드	넥센	4.64	19	110.2	60	57	5	7	0	139	18	82	32	0.314	1.51
14	이재학	N C	4.71	16	84.0	48	44	8	3	0	91	10	82	37	0.275	1.49
15	박종훈	S K	4.78	18	92.1	59	49	6	7	0	93	10	68	73	0.268	1.62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